

보안 뉴스

스크랩 일자	2025-05-29	뉴스 일자	2025-05-29
URL	https://t.co/OG6VaKaC1U		
제목	시카고대병원, 환자·직원 정보 무단기 유출		
내 용			



[시카고대]

시카고대병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4만명에 가까운 환자와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대병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보 유출은 체납된 의료비를 청구하는 외부 업체를 통해 발생했다. 네이션와이드 리커버리 서비스라는 외부 회사의 전산망을 통해 해커의 침입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총 3만 8000명의 환자와 병원 직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개인 정보는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은행, 의료 정보를 포함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출된 정보를 통해 은행 계좌가 개설되거나 용자 신청, 신용카드 개설 등이 가능할 수도 있는 위험이 높다.

그러나 시카고대병원은 아직까지 유출된 정보로 신용 사기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만약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 병원 측은 해당 개인에게 편지로 피해 사실을 고지했다.

정보 유출 사건이 확인되자 시카고대병원측은 즉각 네이션와이드 리커버리 서비스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번 유출 사고로 시카고대병원 뿐만 아니라 네이션와이드 리커버리 서비스사와 계약한 전국의 다른 병원들도 피해를 입었다. 피해 병원으로는 노스이스트 조지아 병원과 어랭거 웨스턴 캐롤라이나 병원, 조지아주의 하빈 클리닉 등이다.

한편 시카고 지역에서는 작년 로레토 병원과 루리 어린이병원 등에서 환자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병원의 경우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인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을 모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사이버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대응

- 외부 위탁업체 전산망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암호화된 연동 강화
- 민감정보 암호화 저장 및 접근 권한을 최소화
- 협력업체 보안 요구사항 및 계약 조건의 강화
- 병원 내부 임직원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 인식 교육 필요
- 보안 사고 대응 매뉴얼 및 비상대응체계(CSIRT) 구축